

巴金과 「文化大革命」

金仁喆*

〈目次〉

- I. 序言
- II. 「文化大革命」시기 巴金의 逆境
- III. 「文化大革命」에 대한 巴金의 批判
- IV. 結語

I. 序言

중국의 '文化大革命'(이하 簡稱 '文革')은 1965년 11월 10일 姚文元이 上海의 《文匯報》에 <評新編歷史劇《海瑞罷官》>을 발표한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海瑞罷官》은 吳晗의 京劇으로 1961년 초 北京에서 상연되어 당시 文藝界와 學術界에 좋은 반응을 얻은 작품이다. 그 내용은 明朝의 청렴한 관리인 海瑞가 江南에 근무할 당시 소작인들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여 악덕지주들이 빼앗아간 토지를 되찾아 주자 조정으로부터 파직을 당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毛澤東과 그의 추종자들은《海瑞罷官》이 毛澤

東에 의해 파직 당한 彭德懷를 옹호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¹⁾ 그리하여 江靑과 張春橋가 결탁하여 姚文元에게 릉함의 《海瑞罷官》을 비판하는 글을 쓰게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은 中共中央政治局에서도 毛澤東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姚文元의 이 글이 발표된 후, 중국의 史學界·文藝界·哲學界 등 社會科學 領域 전체에서 대규모 비판운동이 일어났으며 전국적으로 '文革'의 序幕을 고하였다.

1966년 5월 4일부터 26일까지 北京에서는 '中共中央政治局擴大會議'가 거행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총 76명이었고, 그 중에는 후에 '中央文化革命小組'의 구성원이 된 江靑·張春橋·關鋒·戚本禹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毛澤東이 북경에 있지 않은 관계로 회의는 劉少奇的 주재 하에 열렸으며, 毛澤東이 制訂한〈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通知〉(簡稱〈五一六通知〉)를 통과시켰다. 〈五一六通知〉의 주요 내용은 1966년 2월 12일에 결재하고 회람했던 〈二月提綱〉²⁾을 폐지하며, 원래 彭眞이 組長을 맡고 있던

* 圓光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任講師

- 1) 1965년 12월 21일 毛澤東은 杭州에서 陳伯達등과의 대담에서: “《海瑞罷官》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罷官'이다. 嘉靖황제는 海瑞의 관직을 파면했고, 1959년 우리는 彭德懷의 직책을 파면했다. 彭德懷는 즉 海瑞다.”라고 말했다. (巢峰 主編, 《「文化大革命」詞典》(홍콩, 港龍出版社, 1993년 1월), 381쪽 《海瑞罷官》條 참조)
- 2) 〈二月提綱〉은 “中央文化革命五人小組關於當前學術討論的彙報提綱”으로 中共 中央에서 1966년 2월 12일 전달 발표한 것이다. 1965년 11월 10일 姚文元이 《評新編歷史劇〈海瑞罷官〉》을 발표하자 전국의 學術界와 教育界는 姚文元의 武斷專橫에 대해 분개를 표하고, 1966년 2월 3일 彭眞은 '文化革命五人小組'의 확대회의를 열고 당시 학술비판의 자세와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요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二月提綱〉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의 학술토론과 학술비판의 성질은 毛澤東의 사상과 資產階級 사상의 意識形態 투쟁이며, 無產階級이 정권을 장악하여 社會主義革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학술영역 내에 資產階級과 기타 반동세력의 사상을 제거하려는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진리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고 學閥처럼 武斷과 세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二月提綱〉은 이미 전개된 학술토론 중 '左'의 편향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그 내용을 학술토론의 범위에 두어 학술토론이 정치비판으로 심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文化大革命」詞典》, 289쪽, 〈二月提綱〉條 참조)

‘文化革命五人小組’ 및 그 附屬事務機構를 해체하고 ‘中央文化革命小組’를 다시 설립하여 정치국 상임위원회의 아래에 두며, 그 임무는 無產階級文化革命的 깃발을 높이 들어 反黨反社會主義 學術權威의 資產階級反動立場을 철저히 폭로하고, 學術界·教育界·言論界·文藝界·出版界의 反動思想을 철저히 비판하여 문화영역중의 영도권을 탈취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毛澤東이 ‘文革’을 발동하게 되는 주요 논점이었고 無產階級 革命理論의 주요 내용으로써 ‘文革’을 주도하는 중요한 문건이었다.³⁾

1966년 8월 1일부터 同月 12일까지 北京에서는 毛澤東의 주재 하에 ‘中共八屆十一中全會’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關於 無產階級文化大革命的決定>(<十六條>⁴⁾)를 통과시킴으로써 ‘文革’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文革’은 中國現代史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를 범한 혁명으로 중국인들에게 막대한 災難을 가져왔다. 특히 文藝界와 藝術界에는 예전에 없었던 속박과 규제를 가함으로써 中國文藝界와 藝術界에 완전한 暗黑時代를 초래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文藝暗黑時代인 ‘文革’기간 중의 巴金의 행적을 살펴 그가 어떠한 고통과 학대를 받았는지 알아보고, ‘文革’이 끝난 후 巴金은 어떻게 ‘文革’을 평가하고 비판했으며 그가 제안한 중국 文藝界가 나아갈

3) <「文化大革命」詞典>, 291쪽 <五一六通知>條 참조.

4) <十六條> : 이는 <五一六通知>를 발전시킨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눈앞에 직면한 우리의 임무는 資本主義 노선을 걷는 黨權派를 숙청하고 資產階級의 反動적인 學術權威를 비판함과 동시에 資產階級과 일체의 階級을 착취하는 의식형태를 비판하는 데에 있다. ‘文化革命小組’와 ‘文化革命委員會’는 無產階級 文化大革命的 권력기구이다. 黨의 지도자는 左派를 찾아내어 左派의 隊伍를 발전 강화시키며 철저히 革命적 左派에 의지한다. 제일 反動적인 右派를 고립시키고 중간파를 징취한다. 본래 이름이 없는 많은 혁명청년들이 용감한 맹장이 되었고 그들의 혁명 방향은 줄곧 정확했다. 大字報, 大辯論의 형식을 충분히 운용하여 ‘大鳴大放’을 진행한다. ‘牛鬼蛇神’을 폭로하고 ‘四舊’를 제거하며, 혼란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균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해방하고 교육하게 한다.” 이 <十六條>의 통과는 ‘文革’의 左傾 지도방침을 정식으로 확인한 것이고, ‘文革’을 지도하게 되는 綱領性 문건이 된다. (<「文化大革命」詞典>, 296쪽, <十六條>條 참조)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II. 「文化大革命」 시기 巴金의 逆境

‘文革’은 중국인에게 거대한 災難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文藝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林彪·江青 등의 일행은 30년대의 左翼文藝運動과 1949년부터 1965년까지 17년의 文藝活動을 각각 ‘30年代文藝黑線’과 ‘17年文藝黑線’이라고 비판하였으며, 文藝活動을 하는 사람들을 ‘走資派’·‘黑線人物’·‘反動權威’라고 부르며 비인도적인 專政을 진행하였다.

이는 이미 六旬이 넘은 巴金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1962년 巴金이 <作家的勇氣和責任心>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姚文元을 비판한 이래, 姚文元은 줄곧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었는데 ‘文革’이 시작되자 상황은 반전되었다. 1965년 10월 巴金은 월남 방문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오자마자 姚文元이 쓴 <評新編歷史劇《海瑞罷官》>의 학습회에 요청을 받아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에 巴金은 왜 姚文元이 쓴 한 편의 문장을 모두가 배워야 하는지 이상하게 여겼으나, 3주 정도 지나자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巴金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물 안에 있다.……나는 분명 나를 덮고있는 사방의 망이 점점 더 축소되고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한 주일 한 주일 더 심해만 갔다. 한편으론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생각했다.……나는 마침내 회의석상에서 자진해서 1962년 상해 제2차 ‘文代會’상에서의 발언의 잘못을 반성하였고, 또한 나의 작품 전부를 태우기 원한다고 말했다.⁵⁾

巴金은 이렇게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그는 자

5) 我們都在網裏,……我明明覺得罩在我四周的網越收越小·越緊,一個星期比一個星期厲害。一方面想到即將來臨的災難,……我終於在會上主動地檢查了一九六二年在上海二次文代會上的發言的錯誤。我還說我願意燒掉我的全部作品。巴金, <眞話集·三論講眞話>, <巴金隨想錄>(홍콩, 三聯書店, 1988년 5월), 105~106쪽.

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면 고비를 넘기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姚文元은 巴金을 놓아주지 않았다. 1966년 8월 上旬 巴金은 上海에서 '亞非作家北京緊急會議'에 참가한 귀빈들을 전송하고 작가협회에 돌아와서 그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보았다. 대자보의 내용은 1962년 그의 발언에 관한 것이었는데 단어의 사용이 매우 극렬하여 巴金으로서는 계속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다. 8월 중순 결국 巴金은 專政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牛棚'⁶⁾에 보내졌다. 9월에는 그의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革命群衆에 의해 집재산이 몰수되었고, 이어서 크고 작은 공개적인 비판투쟁대회(批鬥大會)에 끌려나가 비판당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작가협회의 '牛棚'에 “上海 문예계의 검은 왕 巴金을 철저히 타도하자(徹底打倒上海文藝界的黑老K—巴金)”, “사악한 책인 <巴金文集> 14권을 철저히 비판하자(徹底批判邪書十四卷—<巴金文集>)”라는 표어가 나붙었다. 巴金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그러한 나날!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는 정말 한 조각의 암흑이었다. 나는 마치 지옥에서 정역을 사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시 무슨 혼을 잃게 하는 탕(迷魂湯)을 마셨는지 두 손을 들고 자신을 타도하자고 크게 소리 지르고, 가까이 죄를 인정하였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사람됨의 권리를 빼앗게 했는지 이상하다.⁷⁾

1967년부터 巴金의 정신적 면모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과거에 누적해 왔던 마음속의 감정들을 깨끗이 던져 버리고 가슴을 열어 무조건적으로 '造反派'⁸⁾의 모든 지시를 받아 들였다. 이 해 5월 신문에는 巴金의 이름이

-
- 6) 牛棚 : 원래의 뜻은 '소우리'이나 '文革'중에 '牛鬼蛇神'들을 모아 두었던 장소임. 당시에는 '走資派', '地富反壞右', '資產階級反動學術權威', '資本家'등이 '牛鬼蛇神'으로 불렸고 모두 '牛棚'에 감금되었으며 '造反派'가 감독 관리하였다. '牛棚' 안에서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며, 마음대로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고 죄를 자백하고 비판받으며 노동을 해야 한다. (<「文化大革命」詞典>, 116쪽)
- 7) 那種日子! 那種生活! 那種人與人之間的關係! 真是一片黑暗, 好像我在地獄裏服刑. 我奇怪當時我喝了什麼迷魂湯, 會舉起雙手, 高呼打倒自己, 甘心認罪, 讓人奪去我做人的權利. 巴金, <無題集·二十年前>, <巴金隨想錄>, 139쪽.

거론되며 공개적인 비판이 시작되었다. 5월 10일, 胡萬春은 《人民日報》에 <大立毛澤東文藝思想的絕對權威>라는 글을 발표하며 巴金을 “제일 전형적인 자산계급 정신귀족(最典型的資產階級精神貴族)”이라고 하며 “기생충과 흡혈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작품은 모두 反黨 反社會主義적인 해로운 글(過着寄生蟲·吸血鬼的生活, 寫的都是反黨反社會主義的大毒草)”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6월 3일에는 明昭가 《文匯報》에 <無政府主義是無產階級專政的敵人—從批判巴金的《滅亡》談起>를 발표했고, 13일에는 火正熊이 《解放日報》에 <從《滅亡》看無政府主義>를 발표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萬重良이 《解放日報》에 <評彭德懷和巴金的一次反革命勾結>이라는 글을 발표하는 등 巴金에 대한 비판은 날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공개적 비판에 이어진 것은 ‘游鬪’⁹⁾였다. 巴金은 빈번히 각 부처의 ‘勸令’¹⁰⁾에 응해 어쩔 수 없이 각 부처들을 돌아다니며 비판을 당해야 했다. 그 중 장소가 제일 넓고 크게 열렸던 것은 ‘上海雜技場’에서 있었던 비판이었다. 雜技場的 무대는 원형이었고 巴金은 그 무대에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사면 팔방에서는 주먹을 높이 들어 비판받는 이를 향했으며, 비판의 대상자들은 발언자들의 요점을 받아 적어 잘못을 수정할 준비를 해야 했다.¹¹⁾ 1967년부터 巴金은 4년간 이렇게 각지를 돌아다니며 ‘游鬪’를 받았다.

1968년 여름에는 또 다른 방법의 비판투쟁대회가 열렸다. 巴金은 上海의 ‘人民雜技場’에 끌려가 上海文化部에서 개최하는 TV비판투쟁대회에 참석해

8) 造反派: ‘文革’중 반란혁명에 참가한 사람들, 운동 초기에는 인원이 적었으나 모택동의 지지를 얻어 대열은 날로 확대되었고 마지막에는 ‘革命群衆’의 신분만 있으면 모두 ‘造反派’가 되었다. 또한 ‘革命’을 표시하기 위해 스스로 ‘革命造反派’라고 과장해 자랑하였다. (《「文化大革命」詞典》, 116쪽)

9) 游鬪: ‘文革’중의 일종의 투쟁 형식. 투쟁의 대상을 각종 유관기관에 끌어들여 놓고 돌아가며 비판투쟁을 진행함. (《「文化大革命」詞典》, 132쪽)

10) 勸令: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명령하는 것. ‘文革’중에 紅衛兵, 造反派등이 광범하게 운용했던 것으로, 죄를 인정하라거나,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군중들의 비판투쟁을 받으라는 일, 혹은 매일 기관에 가서 청소나 노동을 하라는 일 등이 주 내용이다. (《「文化大革命」詞典》, 109쪽)

11) 巴金, <眞話集·解剖自己>, 《巴金隨想錄》, 131~132쪽 참조.

야 했다. 작가협회의 ‘造反派’는 ‘上海作家協會革命造反兵團’과 ‘上海工人革命文藝創作隊’라는 명의로 “무산계급 專政의 철천지원수 巴金을 철저히 타도하자(徹底打倒無產階級專政的死敵巴金)”라는 專輯을 내어 TV비판투쟁대회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 專輯에는 <反革命的《激流三部曲》—《家》《春》《秋》>와 <評巴金的戰爭文學>등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동시에 상해의 《文匯報》와 《解放日報》에는 ‘문학계의 反動權威인 巴金과 끝까지 투쟁하자(鬪倒批臭文學界反動權威巴金)’와 ‘무산계급 전정의 철천지원수 巴金과 철저히 투쟁하자(徹底鬪倒批臭無產階級專政的死敵一巴金)’라는 제목으로 巴金을 비판하며 TV비판투쟁대회의 내용을 보도했다. 巴金은 이 때를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TV대회가 개최될 때 여론과 위풍을 조성하기 위해 작가협회 상해 분회에서부터 雜技場에 이르는 길가에는 적지 않은 큰 글자의 표어가 나붙었다. 나는 그 많은 ‘打倒’의 글자를 보고 나의 마음은 서늘해졌다. 나는 蕭珊과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이번에 아마 지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¹²⁾

巴金은 이 때부터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하고 절대로 老舍와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 1970년 巴金의 나이는 이미 67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학대는 끊이지 않았다. 1월에 巴金은 ‘五七幹校’¹³⁾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다. 그 곳에서 巴金은 2년 6개월 동안 밭에서 잡일을 하고 채소도 심었으며 심지어는 분노를 나르는 일도 하였다. 저녁이 되면 자주 惡夢을 꾸고 한 밤중에 소리 지르며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그의 몸은 마치 허수아비처럼 수척해졌다.

1972년 8월 巴金은 또 하나의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그의 부인 蕭珊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蕭珊은 巴金이 1966년 8월 ‘牛棚’에 보내진 이후 10월부터 ‘검은 왕의 더러운 년(「黑老K」的「臭婆娘」)’이라는 직

12) 巴金, <眞話集·解剖自己>, 《巴金隨想錄》, 132~133쪽.

13) 五七幹校: ‘文革’기간 동안 毛澤東의 ‘五七指示’를 관철하기 위해 간부들을 집중 시켜 노동을 시켰던 장소임. (<「文化大革命」詞典>, 179쪽)

함을 받고 그와 같이 비판투쟁을 받았다. 巴金이 ‘文革’기간 동안 받았던 정신적 고통을 그녀도 같이 받았으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경에서 온 ‘紅衛兵’¹⁴⁾의 가혹력대 매질도 감수했다. 그녀는 남편의 고통을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적지 않은 위안과 격려도 해주었다. 巴金이 그녀에게 견디기 힘들다고 말할 때 그녀는 오히려 그에게 견디나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녀는 이렇게 살기를 갈망했으나 ‘四人幫’¹⁵⁾은 그녀의 희망을 빼앗아 버렸다. 그녀가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갔을 때 巴金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당하자 巴金은 휴가를 내어 집에 돌아와 그녀를 간호하였다. 그러나 부부의 상봉도 잠시 뿐, 巴金은 휴가가 끝나 ‘五七幹校’에 돌아가야 했다. 딸과 사위가 보다 못해 용감히 ‘工宣隊’¹⁶⁾의 우두머리에게 巴金으로 하여금 환자인 부인을 돌봐줄 수 있게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우두머리는 “巴金이 의사도 아닌데 집에 남아서 뭐하냐! 집에 있으면 그가 개조하는 데 불리해!”¹⁷⁾라고 하며 거절하였다.

1972년 7월 23일 巴金은 시내의 비판투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고, 이튿날 蕭珊은 中山醫院에 입원하였다. 이때야 비로소 巴金은 ‘工宣隊’의 우두머리로부터 시내에 남아 있어도 좋다는 통지를 받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병원에 가서 그녀를 간호하였다. 그녀가 입원한 후 반 개월 동안의 시간은 1966년 8월 이래로 巴金에게는 고통스러웠으나 행복한 시간

-
- 14) ‘文革’前期 대학과 중학교 학생의 군중조직. 自稱“保衛紅色政權的衛兵”이라고 하여 ‘紅衛兵’이란 이름이 붙었다. 1966년 5월 29일 清華大學附中에서 먼저 조직되고 그 후 북경 및 다른 지방에도 이 조직이 생겨났다. 8월 1일 毛澤東은 이 조직에 지지를 표했고 18일에는 천안문광장에서 각지에서 온 홍위병들을 접견한 뒤 이들은 막대한 정치적 역할을 가지고 지방조직과 사회치안을 어지럽게 하였다. (《「文化大革命」詞典》, 189~190쪽)
- 15) 四人幫: 江青, 張春橋, 姚文元, 王洪文 4인이 결성한 파벌. 그들은 ‘文革’초기 서로 결탁하여 막대한 죄를 저질렀음. (《「文化大革命」詞典》, 179쪽)
- 16) 工宣隊: “工人毛澤東思想宣傳隊”의 簡稱. ‘文革’기간 전국 각지의 대학·중학·소학교 및 상부 단위에 파견되어 영도적 역할을 한 工人組織. (《「文化大革命」詞典》, 177쪽)
- 17) 他不是醫生, 留在家裏, 有什麼用! 留在家裏對他改造不利! (巴金, <隨想錄·懷念蕭珊>, <巴金隨想錄>, 19쪽)

이기도 했고, 巴金과 그녀가 같이 보낸 최후의 평화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녀가 입원하고 2주가 지나자 그녀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수술을 해도 소용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蕭珊의 임종 때 巴金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녀의 사촌 여동생만 그녀의 임종을 지켜봤다. 巴金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사촌 동생의 말에 의하면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사촌 동생도 몰랐었다. 그녀는 사촌 동생에게 “의사 좀 불러와.”라고 말했으나 의사가 왔어도 별 다른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잠에 빠져들었고 사촌동생도 그녀가 잠자는 줄 알았으며 간호원이 와서 주사를 놓을 때야 비로소 그녀의 심장이 멎은 걸을 알았다. 나는 그녀와 결별을 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많은 말을 그녀에게 털어놓지 못했다. 그녀는 한 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않고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나는 후에 늘 생각하기를 그녀가 사촌 동생에게 “의사 좀 불러와.”라고 말한 것은 아마 “의사 좀 불러와.”가 아니고 “李先生 좀 불러와.”일 것이다.(그녀는 평소 이렇게 나를 불렀다.) 왜 하필 그날 오전 나는 병실에 있질 않았나? 가족들 모두 그녀 곁에 없었다. 그녀는 이렇게 처량하게 세상을 하직하였다. 18)

蕭珊이 죽은 후 巴金은 ‘五七幹校’의 2년 반 동안의 노동 생활을 마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여전히 上海의 작가협회에서 노동과 학습을 계속해야 했다. 1973년 7월, 당시 ‘上海市委書記’인 王洪文과 馬天水는 巴金의 문제에 대해 “인민 내부의 모순 처리, 反革命 모자를 씌우지 않고 생활비를 지급한다(人民內部矛盾處理, 不戴反革命帽子, 發給生活費)”라고 결정하고 작품 활동을 금지한 채 번역작업만을 허락하였다. ‘四人幫’은 이렇게 巴金을 ‘모자를 쓰지 않은 反革命(不戴帽子的反革命)’으로 규정하고 文藝界에서 쫓아

18) 據表妹說, 她逝世的時刻, 表妹也不知道. 她曾經對表妹說: “找醫生來.” 醫生來過, 並沒有什麼. 後來她就漸漸地“沈入睡鄉”. 表妹還以為她在睡眠. 一個護士來打針, 才發覺她的心臟已經停止跳動了. 我沒有能同她訣別, 我有許多話沒有能向她傾吐, 她不能沒有留下一句遺言就離開我! 我後來常常想, 她對表妹說: “找醫生來.” 很可能不是“找醫生”, 是“找李先生”(她平日這樣稱呼我). 爲什麼那天上午偏偏我不在病房呢? 家裏人都不在她身邊, 她死得這樣淒涼! (巴金, <隨想錄·懷念蕭珊>, <巴金隨想錄>, 25쪽)

냈으며 그의 창작권리를 박탈하였다. 그러나 바金は “내가 설령 굶어 죽더라도 영혼은 팔아먹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거나 나에게 살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¹⁹⁾라고 결심하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이 때부터 바金は 번역작업에만 몰두하였다.

Ⅲ. 바金の 「文化大革命」에 대한 批判

1976년 10월 ‘四人幫’은 결국 와해되었다. 이 소식은 바金에게 무한한 흥분과 믿음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나는 비록 ‘제2의 해방’을 얻었으나 결국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였다. 정말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다. 몸은 이미 늙어……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반드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하는 데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²⁰⁾라고 말하며 1977년 5월 다시 펜을 들어 10년간의 침묵을 마감했다. 그는 우선 <一封信>·<第二次的解放>·<望著周總理的遺像>·<除惡務盡>·<最後的時刻> 등의 산문을 쓰고, 5년 동안 5권의 <隨想錄>과 1권의 <創作回憶>, 그리고 2편의 장편소설을 쓰려고 계획했다. 바金은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고 그의 晩年の 창작생활을 계속하였다.

나는 곧 생명의 끝에 다다른다. 나는 빈손으로 인간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 나는 쓸 것이다. 나는 절대 붓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것으로 하여금 불블게 하여 매섭게 나를 태우도록 할 것이다. 다 타서 잿더미가 될 때 나의 사랑, 나의 恨도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²¹⁾

19) 我即使餓死也不會出賣靈魂, 要求他們開恩, 給我一條生路。(巴金, <一封信>, <巴金全集> 제15권, 516쪽, 人民文學出版社, 1990년)

20) 我雖然得到了“第二次的解放”, 究竟白白浪費了將近十年的時間, 真是噩夢醒來, 人已衰老……可以工作的時間不多了, 我必須抓緊時間, 也抓緊工作。(巴金, <我和文學—一九八〇年四月在日本京都「文化講演會」上的講話>, <巴金隨想錄> 第2集 <探索集>附錄, 139쪽)

21) 我快要走到生命的盡頭了, 我不願意空著雙手離開人世, 我要寫, 我絕不停止我的筆, 讓它點燃火狠狠地燒我自己, 到了燒成灰燼的時候, 我的愛我的恨也不會在人間消失。

1978년 12월 1일 巴金은 《隨想錄》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를 홍콩의 《大公報》에 발표했으며 1986년 8월 20일에 마지막 편 <懷念胡風>을 발표하였다. 《隨想錄》은 모두 5集으로 每集 30편 씩 모두 150편이다. 제1집 《隨想錄》은 1979년 12월에, 제2집 《探索集》은 1981년 4월에, 제3집 《眞話集》은 1982년 10월에, 제4집 《病中集》은 1984년 10월에, 제5집 《無題集》은 1986년 12월에 각각 홍콩의 三聯書店에서 출판됐으며, 1986년 5월에는 《巴金隨想錄》이라는 제목으로 合訂本이 출판되었다.

《隨想錄》에서 제일 특이한 점은 巴金이 자신의 진실된 감정을 독자들에게 표출했다는 점이다. 그는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생활에 대해 총결산을 하였다. 특히 '文革'중 자신의 경력에 대해 철저한 檢討와 反省을 가하였다. '文革' 10년 동안의 災難은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숨김이 있어도 안 된다. 그래서 나이가 이미 80에 가까운 巴金은 체력저하와 질병의 고통을 무릅쓰고 한 편씩 한 편씩 발표함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十年災難'의 사실적 기록을 남겼다. 이 작품들은 모두 巴金이 고의로 진실을 쓰기 위해 쓴 것도 아니고 폭로하기 위해 쓴 것도 아니며, 단지 중국이라는 국토에 다시는 '文革'과 같은 大災難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고 발표한 것이다. 巴金이 《隨想錄》에서 '文革'을 비판한 이유는 다음의 글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꼬박 20년이 지났다. 나도 사람으로 하여금 장이 끊어질 듯 마음이 아픈 옛 일을 다시 말하기가 두렵다. 그러나 20년 동안 줄곧 분명히 할 수 없었던 그 의문들에 대해 한 두 가지 회답은 찾아야 할 것 같다.……아무도 우리 국토에서 다시 한번 '文化大革命'이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 그러면 모두에게 그 10년 동안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을 확실히 기억하게 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文革'博物館을 만드는 것이다. 22)

(巴金, <我和文學——一九八〇年四月在日本京都「文化講演會」上的講話>, 《巴金隨想錄》 第2集 《探索集》附錄, 141쪽)

22) 整整過了二十年, 我也害怕重提叫人心痛腸斷的往事, 但是二十年來一直沒有弄清楚的那些疑問, 我總得爲它們找到一兩個回答.……沒有人願意在我們國家裏再發生一次

‘文革’博物館을 만들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물건으로, 심금을 울리는 진실한 광경으로 20년 전 중국 이 땅 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모두에게 그 과정 전부를 보게 하고, 개개인은 10년 동안의 모든 행위를 생각하며, 가면을 벗고 양심을 꺼내어 자신의 본래 면모를 똑똑히 밝혀 과거의 크고 작은 빛을 झा야 한다. ……‘文革’을 확실히 기억하는 자만이 비로소 역사의 재현을 막고 ‘文革’이 다시 오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과거’를 잊지 않아야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²³⁾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巴金이 《隨想錄》에서 ‘文革’을 비판한 이유는 과거의 경험을 총결산하여 미래를 경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목적으로 친구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라는 충고도 듣지 않고 놀라운 의지력으로 이 《隨想錄》을 쓴 것이다. 《隨想錄》이야말로 巴金의 진실된 말로 건립된 ‘文革’을 폭로한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文革’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연히 ‘四人幫’의 각종 범죄행위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巴金은 ‘文革’에 대한 비판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하였다. 그는 ‘四人幫’은 4인에 그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四人幫’에게 떠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모든 책임을 ‘四人幫’에게 떠맡길 수는 없다. 나 자신도 ‘四人幫’의 권위를 승인했었다. 머리 숙여 무릎을 굽히고 기꺼이 그들이 압박하고 착취하게 하였다. 설마 이런 내가 책임이 없는가! 설마 다른 많은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파고 또 나의 상처를 파낸다. 이는 매우 힘든 일이다. 깊이 팔

‘文化大革命。那麼讓大家都牢牢記住那十年中間出現的大小事情。最好的辦法我看只有一個，創辦‘文革’博物館。(巴金，〈無題集·二十年前〉，〈巴金隨想錄〉，147~148쪽)

- 23) 建立一座‘文革’博物館，用具體的·實在的東西，用驚心動魄的真實情景，說明二十年前在中國這塊土地上，究竟發生了什麼事情！讓大家都看看它的全部過程，想想個人在十年間的所作所爲，脫下面具，掏出良心，弄清自己的本來面目，償還過去的大小欠債……只有牢牢記住‘文革’的人才能制止歷史的重演，阻止‘文革’的再來……惟有不忘‘過去’，才能作‘未來’的主人。(巴金，〈無題集·‘文革’博物館〉，〈巴金隨想錄〉，137~138쪽)

수 있을까? 대담하게 깊이 팔 수 있을까? 성과가 있을까? 이는 나에게도 한 번의 시험이다. 24)

巴金은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 《隨想錄》에서 자기 자신을 엄격히 분석하고 있다.

그 때 나는 거짓말 속에서 세월을 보냈다.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고, 처음에는 거짓말을 진실로 여겼고, 후에 차츰 거짓인지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자신을 개조하기 위하여, 후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거짓말을 정말로 여겨 말했고, 후에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여겨 말했다. 10년 동안 나는 차츰 10좌의 閻王殿의 형상을 분명히 보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迷魂湯'은 그 효용을 잃었다. 나의 머리는 맑고 깨끗해졌다. 머리를 돌려 등뒤의 길을 돌아보니 이 몇 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분별할 수 있었다. 내가 발아래 밟은 것은 그렇게 많은 거짓말이었다. 꽃으로 장식한 거짓말이었다. 25)

巴金の 《隨想錄》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석 비판한 곳이 상당히 많다. 그가 자신을 분석 비판한 이유는 '災難'의 전후 관계를 분명히 밝혀 잘못을 교정하고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해서이다. 是非를 가리고 眞僞를 구별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부터 시작해야 장래에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巴金の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그의 作品 創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巴金은 자기분석을 통하여 스스로를 이해하는 동시에 '四人幫'에 대해 독

24) 我冷靜地想：不能把一切都推在'四人幫'身上，我自己承認過'四人幫'的權威，低頭屈膝，甘心任他們宰割，難到我就沒有責任！難到別的許多人就沒有責任！……我挖別人的瘡，也挖自己的瘡，這是多麼困難的工作！能不能挖深？敢不敢挖深？會不會有成績？這對我也是一次考驗。（巴金，〈《探索集》後記〉，〈巴金隨想錄〉，144~145쪽）

25) 那些時候，那些年我就是謊言中過日子，聽假話，說假話，起初把假話當作真理，後來逐漸認出了虛假；起初爲了改造自己，後來爲了保全自己；起初假話當作真話說，後來假話當作假話說。十年中間我逐漸看清楚十座閻王殿的圖像，一切都是虛假！迷魂湯也失掉了效用，我的腦子清醒，我回頭看背後的路，還能夠分辨這些年我是怎樣走過來的。我踏在腳下的是那麼多的謊言，用鮮花裝飾的謊言。（巴金，〈真話集·再論說真話〉，〈巴金隨想錄〉，105쪽）

바로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社會를 바로 보게 되었다. 그는 '文革' 초기에 사회 전체가 발전할 줄 알았는데 '文革' 후기에 갑자기 사방에 '高老太爺'²⁶⁾가 날뛰는 것을 발견하였다.

몇 년 동안 나는 계속해서 '牛鬼'라 불리어 왔다. 그런데 줄곧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던 진짜 '牛鬼'가 예쁜 옷을 입고 한가로이 대로를 거니는 것이었다. 내가 가리키는 것은 封建의 잔존 혹은 封建의 악영향이다.²⁷⁾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단지 林彪만 혹은 '四人幫'만 책망해선 안 된다. 우리는 자신도 꾸짖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그 봉건적인 상품을 먹었으니까 林彪와 '四人幫'이 그것들을 팔아 장사가 잘 되는 것이다.……封建의 毒素은 林彪와 '四人幫'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또 그들 보고 다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다.……나는 48년 전에 소설 《家》를 썼다. 나는 후에 反封建을 철저히 못했다고 자아비판도 했다. 그러나 그 反封建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긴 사람들은 정말 철저히 반대했는가? 방법이 없다. 오늘 우리는 아직 반드시 크게 反封建을 해야 한다.²⁸⁾

巴金的 이러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反封建을 해야 한다는 사상은 '文革'후 그가 사회에 제안한 견해이며, 자기반성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얻은 진실한 감정이기애 더욱 더 귀중한 것이다.

巴金은 10년 동안의 災難 중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의 人生歷程 중 줄곧 탐색해 왔던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았다. 그는 영화 《小街》에서 여주

- 26) 巴金的《激流三部曲》에 등장하는 인물. '高老太爺'는 封建大家庭의 통치자이며 당시 典型的인 地主階級の 인물이다.
- 27) 一連幾年我被稱爲'牛鬼',而一向躲在陰暗角落裏的真正的'牛鬼'却穿起漂亮的衣服在大街上遊逛.我指的是封建殘餘或者封建流毒.(巴金,〈病中集·賣買婚姻〉,《巴金隨想錄》,135쪽)
- 28) 我常常這樣想:我們不能單怪林彪,單怪'四人幫',我們也得責備自己!我們自己'吃'那一套封建貨色,林彪和'四人幫'販賣它們才會生意興隆.……封建毒素並不是林彪和'四人幫'帶來的,也不會讓他們完全帶走.……我四十八年前寫了小說《家》.我後來自我批評說,我反封建反得不徹底.但是那些認爲'反封建'已經過時的人,難道就反得徹底嗎?沒有辦法,今天我們還必須大反封建.(巴金,〈隨想錄·一顆桃核的喜劇〉,《巴金隨想錄》,55~57쪽)

인공인 俞아가씨 말 중에서 계시를 얻었다.

俞아가씨가 말했다: “10년의 동란은 우리 이 시대사람의 청춘을 앗아갔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청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 나는 이러한 느낌이 들었다. “아 나는 잡았다!” 내가 찾고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지난 몇 년 전 내가 몽롱하게 느꼈던 것들이 지금은 똑똑하게 보인다. 그것은 마땅히 사랑, 불, 희망, 일체의 적극적인 것일 거야.²⁹⁾

10년의 재난을 겪은 巴金은 온몸의 상처와 비통한 교훈 이외에 인류를 동정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고귀한 마음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그가 말한 ‘愛’·‘火’·‘希望’은 ‘文革’이 끝난 직후 혼란한 사회상황 하에서 인류를 사랑하고 희망을 가지고 광명의 길로 전진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과거 집착적이 아닌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주장이다.

IV. 結語

巴金은 ‘文革’ 10년 동안 온갖 고초를 다 겪었다. 정신적으로는 창작활동을 제한 받아 그의 진정한 사상을 표현할 수 없었고, 육체적으로는 갖은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巴金 혼자만 겪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 대부분의 文藝界 인사들이 그러했다. 그래서 ‘文革’ 10년 동안의 중국 文藝界를 暗黑時代라 부르는 것이다.

1976년 9월 9일 毛澤東이 사망하고 ‘文革’이 끝나자 巴金은 자신에게 온갖 고통을 안겨준 ‘文革’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중국 文藝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巴金은 ‘文革’을 ‘四人幫’의 封建專政으로 규정하고 反封建을 주장한다. 이 때 그가 주장했던 反封建은 家庭 속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29) 俞姑娘說的: “十年的動亂捲走了我們這一代人的青春, 但它捲不走我們心中比青春更美好的東西。”我有這樣一種感覺: “啊, 我抓住了!”我在探索中所追求的正是這個…前些年我朦朧的感覺到的東西現在看得比較清楚了。它應該是愛, 是火, 是希望, 是一切積極的東西罷。(巴金, <真話集·「小街」>, <巴金隨想錄>, 98~100쪽)

局部的인 反封建이 아니라, 자기반성을 통하여 그 대상을 보편적인 사회구조로까지 확대한 全面的인 反封建인 것이다.

한 가지 애석한 점이 있다면 巴金은 '文革'을 비판하면서 단지 '四人幫'의 封建專政의 비판에 그치고 '四人幫'의 封建專政을 가능케 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巴金의 《隨想錄》에 의하면 그는 '文革'의 실체를 폭로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文革'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文革'의 근본은 中國共產黨 내부의 政權鬭爭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巴金은 中國共產黨을 비판하지 않았고 毛澤東의 사상도 비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隨想錄》은 '文革'을 비판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巴金이 처해 있는 주위환경이 단지 그 정도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 參考文獻 >

- 《巴金全集》, 巴金,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86년 ~.
- 《巴金隨想錄》, 巴金, 三聯書店, 香港, 1988년 5월.
- 《創作回憶錄》, 巴金, 三聯書店, 香港, 1981년 9월.
- 《巴金六十年文選》, 巴金, 上海文藝出版社, 1986년 12월.
- 《巴金談人生》, 李存光, 中國青年出版社, 北京, 1992년 5월.
- 《巴金傳》, 徐開壘, 上海文藝出版社, 1996년 7월.
- 《巴金年譜》, 唐金海 張曉雲, 四川文藝出版社, 成都, 1989년 10월.
- 《中國「文革」十年史》, 嚴家其 高舉 編著.
- 《「文化大革命」詞典》, 巢峰 主編, 港龍出版社, 香港, 1993년 1월.
- 《中國大陸政治術語》, 李谷城, 淑馨出版社, 臺北, 1992년 12월.